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전진 배치

춘향의 본향 남원에서는 춘향전의 주인공인 춘향과 이몽룡이 만난 날을 기념해 춘향제를 개최해 올해로 벌써 94회째다. 지난 1931년부터 열린 일제강점기 암울했던 시절부터 우리 민족을 위로하고, 기쁘게 만들었던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축제, 100주년을 내다보는 춘향제가 올해 어떻게 더 이채롭게 진화해 치러지는지 알아보자.

/편집자주

▲춘향제의 기원

춘향제는 1931년 일제강점기에 남원의 유지들과 지역의 국민인들의 참여 속에서 민족의식 고취와 춘향의 절개를 이어 받고자 사당을 건립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본격 시작됐다. 그로 인해 제1회 때에는(1931년) 춘향과 이몽룡이 처음 만난 것을 기념하는 단옷날에 남원 권번(券番)주관으로 전국 각지의 명가(名妓) 1백여명이 모여 최초 건립한 춘향사당에서 최초의 춘향제를 올렸다. 그렇게 94년이란 장구한 역사를 품은 춘향제는 올해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분기점을 맞아 '춘향 Color(에) 반하다'를 주제로 '형형색색 글로벌 춘향제'를 표방하며 오는 5월 10일부터 7일간 남원 광한루원 일대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한마디로 올 춘향제에서는 국내를 넘어 세계로 향하는 축제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다채로운 콘텐츠를 아낌없이 선보이겠다는 복안이다.

▲춘향 월드 선발대회

지난 1956년부터 '춘향다움'이라는 춘향의 가치를 알리고 한국의 전통성과 아름다움을 보여준 제94회의 역사를 자랑하는 남원춘향제 대표 프로그램인 '미스 춘향 선발대회'가 올해부터는 글로벌로 영역을 확장, 펼쳐진다. 이러한 변화에 벌써 캐나다, 일본, 베트남 등 5개국의 여성 84명이 참여 신청을 했고, 오는 15일 펼쳐질 본선에는 5명이 진출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의 전통적 미인을 뽑아 온 춘향선발대회에는 외국인도 참가, 공식 미스 춘향진·선·미·정·숙·현 6명 외에 번외로 외국 춘향이 선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해외 춘향을 선발하는 국가와는 우호협약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 우승자가 선발될 시 춘향다움의 가치를 해외에 널리 알리고, 우호교류를 통해 남원을 전 세계에 홍보할 계획이다.



춘향제할



미스 춘향 선발대회



대동 길놀이



춘향제 프레스테이



10일부터 7일간 광한루원서... 글로벌 표방 미스 춘향 선발대회, 세계로 영역 확장 개최 춘향 무도회 등 축제성 강화 프로그램 마련 더본 코리아와 협업... 바가지 없는 축제 조성 춘향제의 가치 재조명 위한 포럼도 준비돼

▲축제성 강화

올해는 모두 동참할 수 있는 축제성을 강화한 프로그램도 전진 배치됐다. 축제기간 시민과 관광객들은 직접 춘향전의 등장인물인 춘향, 이몽룡, 방자, 향단, 변화도, 월매로 변신할 수 있는 의상·분장 체험 행사인 '춘향 무도회'가 열린다. 이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합하고 화려한 한복파티가 남원에서 벌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의 캐릭터 코스를 위해 행사장 입구인 춘향교삼거리부터 십수점 사이에 한복대여부스 15동과 뷰티, 메이크업 부스 8동이 마련될 예정이다.

▲기타 축제

이밖에 시민과 관광객, 전문공연팀 등 총

4,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퍼레이드 '발광 난장 대동 길놀이'도 열린다. 고전소설 '춘향전'의 명장면들을 각색해 남원 시내 한복관에서 연출, 펼쳐지는 만큼 춘향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색다른 볼거리가 펼쳐질 예정이다. 오전으로 광장에서는 댄스동호회와 비보이 단체의 공연이 펼쳐지고, 광한루원 앞 메인 스테이지에서는 DJ가 진행하는 한복 EDM 파티도 즐길 수 있어 그야말로 축제 성찬이 가득하다.

▲춘향제와 백종원

더본 코리아와 남원시 협업 통해 바가지 없는 축제 만들기에 나서며, 올 춘향제가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먹거리 부분이 한뼉한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가 올 제94회 남원춘향제

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먹거리 제공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요식업계의 마스터의 손'이라 불리는 백종원 대표의 더본 외식산업 개발원과 협업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더본과 함께 오는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개최하는 남원춘향제에서 푸집하고 기쁜 음식의 땅, 남원에서 자란 싱싱한 농산물과 백종원의 요리 노하우가 결합된 특별한 음식들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남원시와 더본은 △막걸리 축제 △전통음식 테마의 '춘향 난장'을 운영할 예정으로 먹거리부스 운영자 선정 후에는 일대일 컨설팅 교육까지 맡았다. 춘향 난장과 막걸리 축제의 주된 메뉴로는 남원에서 재배한 고품질의 농산품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들이 소개된다. 추어탕, 남원참미, 멜론, 파프리카, 사과, 포도, 딸기, 그리고 버섯을 활용한 음식들은 방문객들에게 남원의 풍미를 제대로 느끼게 해 줄 예정이다. 이밖에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신고제도, 정량표기, 레시피 관리, 전담직원 매칭 등을 도입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남원시는 춘향제 기간 각각의 먹거리존에 키오스크를 활용해 투명한 먹거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으로 민원 사전 예방과 현장 점검을 통한 바가지요


금 근절에도 나설 계획이며, '민원의 행복' 등 축제기간 추어탕 등 음식값을 1만원만 받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춘향제를 말하다

100회를 향해 달려가는 춘향제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장수 축제인 '춘향제'에 대해 논하는 남다른 자리도 열린다. 먼저 대한민국 최초 지역축제로서 글로벌 축제로의 발전과 지역축제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0~11일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춘향제 100년, 지역축제 진화와 혁신'이라는 주제로 '남원세계축제포럼'이 개최된다. 이탈리아 페라라 베르스카 페스티벌의 레베카 보르니 위원장, 프랑스 아비뇽페스티벌 알랭 티마르 집행위원, 일본 축제전문가 오마츠리재팬 스가와라 켄스케 등이 방문, 축제 사례 등을 발표한다. 또한, 오는 15일 오후 6시부터 예무원 야외무대에서 펼쳐지는 '보이는 이몽룡스튜디오 - 춘향제편(‘와트 업 춘향 남원 유니버스- HPP 파티’)도 눈여겨볼 프로그램이다. '보이는 이몽룡스튜디오 - 춘향제편'은 '축제=도시발전의 강력한 경쟁력'이란 명제 아래 'K컬처의 중심인 더 글로벌해지고, 합해진 춘향제'의 오늘(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새개념 정책토론회 콘서트로서 자리에서 시민, 관광객들과 호흡한 소통의 장이 펼쳐질 전망이다.

▲수도권 언론인 대상 프레스테이

다채롭고, 글로벌하게 펼쳐질 '제94회 춘향제'의 가치를 범국민적으로 알리고,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분기점을 맞아 남원시는 앞서 지난 3월 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94회 남원 춘향제 D-50 프레스테이'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프레스테이'에는 서울 소재 중앙일간지 여행담당 기자, 한국 주재 외신 기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시는 글로벌 축제로 나아가는 춘향제의 방향성과 관전포인트 등을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경식 남원시장이 번사포로 분장, 춘향제를 소개하는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해 올 축제의 백미로 작용할 '춘향제 캐릭터 코스튬'을 쇼케이스로 짧게 선보여, 국내 기자는 물론, 외신기자 등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번사포 분장으로 언론브리핑에 나선 최경식 남원시장은 "100주년을 내다보는 춘향제는 남원의 상징 그 자체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야 할 남원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대한민국 최장수 대표 전통문화축제라는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올해는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를 통해 영역을 더 확장, 춘향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더본 코리아와의 협업을 통해 바가지 요금 없는 축제, 지역과 상생하는 품격있는 남원춘향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많은 기대와 성원을 부탁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진안에

기부하고 혜택받고!

고향에 사랑하는 마음을 보내세요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드립니다.**
※세액공제 10만원, 담례품 3만원

지역특산물 등 진안의 마음을 담은 담례품 지급

- 기부액의 30%
- 진안군 담례품 : 돼지고기, 홍삼, 수삼(인삼), 사과, 진안홍삼스파 이용권, 승마체험 이용권, 진안고원물 온라인 상품권 등 34종

문의 : 진안군청 기획홍보실 인구활력팀 063-430-2830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
- 10만원 초과 분 16.5% 추가 공제
-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 단체 기부 불가)

기부 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기부금납부, 담례품 선택, 세액공제 원스톱 시스템)
- 오프라인 : NH농협은행 창구(전국 모든 지점)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담례품 받아주세요.